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6
스바냐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스 바 나 Zephaniah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3:17)

יְהוָה אֱלֹהֵינוּ בְּקִרְבֵנוּ גְבוּר יוֹשִׁיעַ
יֵשִׁישׁ עִלְיָנוּ בְּשִׂמְחָה יַחְרִישׁ בְּאַהֲבָתוֹ
יְגִיל עִלְיָנוּ בְּרָגָה :

스바냐 차례

스바냐 서론	〈13제〉	… 419
제 1 장 심판의 날	〈23제〉	… 423
제 2 장 하나님의 권고와 이방에 대한 심판	〈20제〉	… 430
제 3 장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미래의 구원	〈24제〉	… 436

스바냐 특별 자료 차례

스바냐 서론 〈연구 자료〉 스바냐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	422
제 1 장 〈본장의 요절〉	429
제 2 장 〈화보 자료〉 고슴도치 모양의 도기(陶器)	435
제 3 장 〈지도 자료〉 스바냐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441
제 3 장 〈화보 자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442

스바나 서론

1. ㉠ 본서의 저자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는 스바나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나에게 임한 사실과 본서의 내용이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 (2)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언하였으며(1:4) 특별히 상류 사회의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족과 방백들의 죄악상을 지적할 수 있었다(1:8, 9; 3:3).
- (3) 한편 본서에는 스바나의 조상이 4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1:1) 이런 예(例)는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의 제보에서는 드문 일이다(참조, 사 1:1; 렘 1:1; 호 1:1; 암 1:1).
- (4) 이처럼 스바나의 조상을 4대에까지 걸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조상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같은 유명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1:1).

2.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명칭은 '스바나'로서 곧 본서의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1:1)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이다.
- (2) 이 '스바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츠파야>인데 '감추다'라는 말인 <차판>과 '여호와'라는 말인 <야>의 복합어로서 '여호와께서 숨겨 주신 자',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자'란 뜻이다.
- (3) 한편 70인역(LXX)에서도 이 <츠파야>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한 <소포니아스>를 본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3. ㉠ 본서의 기록 시기는 언제인가?

- ㉠ (1) 본서는 대략 유다 왕 요시야(B. C. 640-609)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나(1:1) 그 정확한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 (2) 그러나 본서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B. C. 622)을 하기 몇 해 전인 B. C. 627-62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3)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1:4, 5; 왕하 23:4, 5) 만일 스바나가 본서를 종교 개혁 이후에 기록하였다면 그는 분명히 본서에 서 그 같은 우상 숭배에 관해 언급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아 물론 이러한 모든 점들에도 불구하고 스바나가 앗수르와 니느웨의 멸망(B. C. 612)을 예언하였던(2:13) 것으로 보아 그가 예언한 시기는 B. C. 612년 전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4. ㉠ 본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 ㉠ (1) 첫째로, 본서는 1장에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한 후 은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을 심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1:1-18).
- (2) 둘째로, 2장 서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데(2:1-3)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셋째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나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진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2:4-15).
- (4) 넷째로, 회복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패망과 비참함을 묘사하며(3:1-7), 열방에 패망과 심

판을 예언하고 있다.

- (5)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위해 구원을 약속하실 것이며(3:9,10) 심판 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다(3:12-17).
- (6)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흠어진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불러모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3:18-20).

5.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대제국 앗수르는 에살하돈(Esarhaddon, B. C. 680-669) 과 앗술바니팔(Ashurbanipal, B. C. 680-626)의 치세 때 국력이 절정에 달했으나, 지나친 확장 정책과 내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후에는 국력이 쇠퇴하게 되었다.
- (2) 이때 앗수르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B. C. 626), 결국 B. 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하여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고 앗수르는 멸망하게 되었다.
- (3) 이런 열방의 상황하에서 스바냐는 앗수르가 메대의 공격을 받을 당시 스키티아족(Scythians)이 서부 아시아를 침공(B. C. 625)하리라는 것과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였으며 또한 유다와 열방들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하였다(1:2-18;2:4-15).

6. **㉠** 본서에 나타난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패상(腐敗相)을 설명하라.

- ㉠** (1) 종교와 윤리 및 사회 기강의 타락은 집권층의 부패에서 비롯되었으니(참조, 1:8;3:3;렘 2:8) 스바냐 시대에도 율법은 있었으나 무시되고 방탕과 압제만이 횡행했을 뿐이었다(3:4;렘 8:8).
- (2) 게다가 유다 곳곳에서는 여전히 바알 숭배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성행하였으며(1:4) 여호와의 경배는 말뿐이었다. 즉 그 당시는 여호와 경배와 우상 숭배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1:5;렘 5:2,7;7:9).
- (3) 이러한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은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었으니(1:12) 이에 대해 선지자들은 아무런 지적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들 스스로가 먼저 타락해 있었다(3:4).
- (4) 또한 그들은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었으며(2:1;3:5) 유다 각 성읍들은 배신과 더러움만이 가득하였다(3:1).
- (5) 이처럼 부패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고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3:17;렘 2:30) 스스로 쌓은 죄악에 의해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7. **㉠**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와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다(1:15, 18).
- (2) 즉 그날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의와 불경건(1:4, 5, 8, 9, 12)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정하신 날이니 침략과 재난이 닥쳐와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1:13-18).
- (3) 또한 여호와와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날이기도 하다(2:4-15).
- (4) 그러나 이러한 심판과 진노 후에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到來)할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와 날’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비교, 3:14-20;사 11장).

8.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스바냐는 닥쳐올 여호와와 ‘진노의 날’을 예언하면서 그날의 환난과 파멸을 경고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다(1:7-18).
- (2) 또한 본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義)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참조, 사 11:5;계 19:11).

(3) 그러나 본서는 이와 같은 심판에 강조점을 두기 보다는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데에 그 주된 기록 목적이 있다(3:8-20).

9. **㉠** 본서의 문학적 특징을 말하라.

- ㉠** (1) 본서는 주제나 표현 양식에 있어서 다른 예언서와 유사한 점이 많다(사2:6-22;34:6; 욥 1:15; 함 2:20).
 (2) 특히 주제에 있어서 스바냐는 아모스와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물려받았다(사2:6-22; 암9:1-10).
 (3) 그리고 본서의 문체는 수식과 우아함이 없이 간결하므로 시적인 음률(音律)이 결핍되어 있다.

10. **㉠** 본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신 4:39; 시 47:2, 3)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신 32:46).
 (2)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고(1:12)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중심의 교만에 빠져 있다(1:6, 12).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때때로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신다(1:14-18).
 (4)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여야 할 것이다(2:3).
 (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한 자들에게 자신의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시며(3:9-20), 그들을 기뻐하시며(3:17), 세상에서 칭찬을 듣게 하실 것(3:19, 20) 이라는 사실을 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11. **㉠** 본서에 나타난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심판 사상'이다. 스바냐는 본서에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에 대한 보복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1:2-3:8).
 (2)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 (3:12, 13)의 사상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 남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된다는 것이다(3:9-20).
 (3) 이 두 사상에서 보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케 된 것에서부터 새 창조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1:2, 3; 3:11).
 (4) 이처럼 심판과 구원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모두 예언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2:7; 3:20).

12.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저자, 시대적 배경 / 1:1
 (2) 심판의 예언들 / 1:2-3:8
 ① 유다에 대한 심판 / 1:2-18
 ② 회개에 대한 권고 / 2:1-3
 ③ 이방 열국들에 대한 심판 / 2:4-15
 ㄱ. 블레셋에 대한 심판 / 2:4-7
 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 2:8-11
 ㄷ. 구스에 대한 심판 / 2:12
 ㄹ. 앓수르에 대한 심판 / 2:13-15
 ④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 3:1-7

⑤ 열방들에 대한 심판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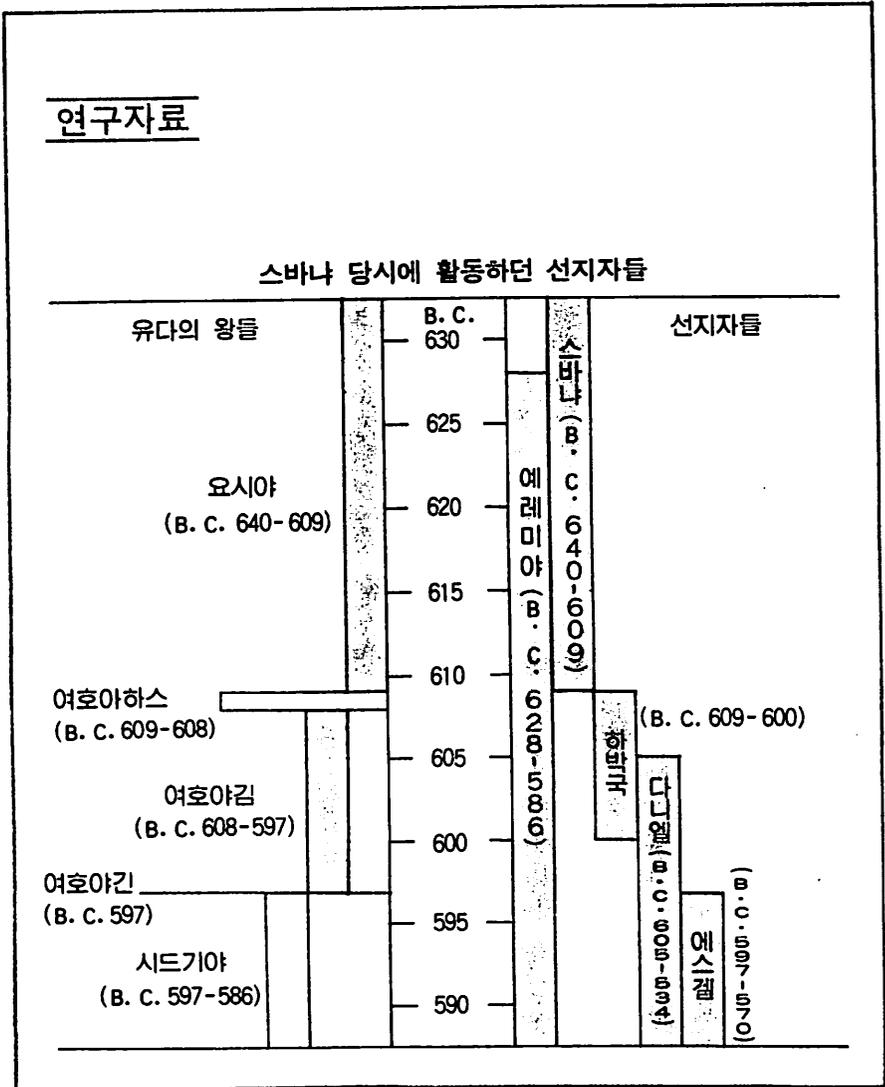
(3) 미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 / 3:9-20

① 이방을 위한 축복의 약속 / 3:9, 10

② 유다를 위한 축복의 약속 / 3:11-20

13.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全能者)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3:17).



제 1 장 심판의 날

단락구분 1 스바냐의 족보 / 2-3 온 세상에 대한 심판 / 4-6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 7-13 심판 받을 자들 / 14-18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심판의 형편

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립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6 여호와를 배반하고 좃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7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회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8 여호와와 회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궤홀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 이 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

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1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12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꺼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13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15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은 땅이 여호와와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을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란 어느 특정 계층이나 한 개인의 죄라기 보다는 백성 전체의 죄악이었다 (12절).
- (3) 즉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4, 5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6절),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죄를 범하였던 것이다 (12절).
- (4) 이처럼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일찌기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율법을 항상 자신들의 삶 주변에 간직하고 있었다 (참조, 신 6

:1-9).

- (5)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율법 준수(遵守)와 여호와 경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었다(5절). 그러므로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2. ㉠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는가? (1절)

- ㉠ (1) '요시아'(또는 '요시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요시야후>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고치시다'이다.
- (2) 그는 유다 왕 아몬의 아들(참조, 마1:10)이었으며,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왕하21:24) 후 자신의 선왕(先王)인 므낫세나 아몬과 같이 폭력 정치를(참조, 왕하21장) 하지 않고 선정(善政)을 베풀었다(참조, 대하34:3).
- (3) 특히 그는 당시의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왕하22:8)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들을 온 국민과 함께 지키기로 결심하고(왕하23:3) 우상을 제거하여 모든 성읍을 깨끗하게 하였다(왕하23:4-20).
- (4) 그리고 이러한 종교 개혁과 함께 그는 거국적(學國的)으로 유래 없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었다(왕하23:21-23).
- (5)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였으니 그 결과 그의 생전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참조, 왕상3:6-14).
- (6)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자신에게 임한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강건해진다(참조, 왕상3:6-14).

3. ㉠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히스기야(B. C. 725-697)는 스바나의 4대조(祖)로서 유다의 제 13대 왕이었는데, 역대 유다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자였다.
- (2) 한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선왕(先王) 아하스(B. C. 740-728) 때의 종교적 무질서를 바로잡고 일대 종교적, 정치적 개혁을 이룩했었다(왕하18:3-8).
- (3) 그는 또한 앗수르의 압박으로부터 유다의 자주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었는데, 그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실로암의 터널 수로'(왕하20:20; 대하32:1-8, 30)는 오늘날까지도 그 형체가 남아 있다.
- (4) 특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 받았던 사건은 그의 신앙심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좋은 일례이기도 하다(왕하20:1-11).

4. ㉠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계까지 진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 (1) 인간의 죄악이 인간 사회는 물론 자연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2) 이러한 사실은 곧 아담이 범죄한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던 일에서도 잘 나타난다(창3:17, 18).
- (3)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계까지 진멸되었던 대표적인 예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때 '땅 위의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창7:21).
- (4) 이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연계는 오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과 같은 구속(救贖)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 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롬8:18-25).

- (5) 그리고 이처럼 자연계가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구속되는 그날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젖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사 11:6-8).
- (6) 아뿔튼 우리는 자신이 짓는 죄가 자신과 인간 사회에만 해악(害惡)을 끼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연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삼가 조심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앞서 세상 심판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즉 심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전세계에 적용된다.
- (2) 이는 또한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처럼 유다가 그들의 관영한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3) 이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참조, 렘 5:1).
6. **㉠ 본절에서 '거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의미한다.
- (2) 즉 우상 숭배나 우상 숭배의 유물들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것들이다.
- (3) 이와 같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항상 그리고 어디에나 산재(散在)해 있다(참조, 사 57:14). 따라서 이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신앙 생활의 거침들들을 멀리해야 한다.
7. **㉠ '바알'은 어떠한 신(神)인가? (4절)**
- ㉡** (1)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의 신으로서 '주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농경과 가축 그리고 다산(多産)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다.
- (2) 또는 '바알'이란 용어는 지명을 나타내거나(민 25:3; 사 3:3) 계약의 신을 의미하는 '바알브릿'(사 8:33)과 같이 제한적인 뜻으로도 사용되며, 특별한 장소의 소유주를 의미하기도 한다.
- (3) 그리고 '바알'에 대한 제사 의식에 있어서는 종교적 매음(賤淫, 사 2:17; 렘 7:9)과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렘 19:5) 악행도 찾아 볼 수 있다.
- (4) 이러한 바알 신앙은 히브리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참조, 단 7:7), 바알의 제사 의식은 애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8. **㉠ '바알의 남아 있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바알 숭배를 금지시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이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종교 개혁(왕상 18:3; 23:4, 5) 후에도 예루살렘의 타락한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왕하 21:3-7).
- (3) 이와 같이 사회의 악이나 교회의 부패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욕망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참조, 시 78:30),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물리칠 수도 없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께 의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롬 8:2).
9. **㉠ '그마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이 단어의 어원(語原)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마림’이 ‘바알의 제사장’을 의미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 (2) 그런데 아람어에서는 이 단어가 이방 신들의 제사장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사장을 지칭하는 폭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 (3) 또한 구약에서도 이 단어가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의 제사장(왕하 23:5)이나 송아지 우상의 제사장(호 10:5)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 (4) 그러므로 ‘그마림’이란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로 단정할 수 있다.

10. ⓐ 하늘의 일월 성신(日月星辰)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행위인가? (5절)

- Ⓐ (1)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징조를 예측하는 점성술(占星術)과 그 별들에 대해 경배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이미 모세 시대부터 있었으며(신 4:19), 므낫세 왕 시대 이후 이런 경배가 극심했었다(왕하 21:3, 5; 23:4, 5; 렘 7:18; 44:17-19).
- (3) 그런데 본래 일월 성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며, 인간을 위하여 조성된 것일 뿐이다(창 1:14-19).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창 1:27)이 그와 같은 것을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비하(卑下)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11. ⓐ ‘말감’은 어떤 신(神)인가? (5절)

- Ⓐ (1) 암몬 족속의 신이며 그 이름은 ‘저들의 왕’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왕상 11:5).
- (2) 그런데 별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말감’을 <멜콤>(왕상 11:5)으로 그리고 70인역(LXX)에서는 <몰룩>(왕상 11:7)으로 음역하고 있다.
- (3) 한편 이스라엘의 말감 숭배는 솔로몬 시대(왕상 11:5)에 솔로몬이 그의 후궁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 이를 제사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왕상 11:7, 8, 33; 왕하 23:13).
- (4) 이와 같이 인간은 종종 자신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신앙인 것이다(참조, 신 7:9).

12. ⓐ 스바나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적 타락은 어느 정도였는가? (5,6절)

- Ⓐ (1) 여호와 경배와 우상 숭배가 공존할 정도였으며 배교자(背敎者)와 무신론자(無神論者)들도 허다한 지경이었다.
- (2)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유일신(출 8:10; 15:11) 이시며, 그들은 그 하나님과 언약(출 19:5; 수 24:25)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였다.
- (3)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국가의 종교적 상황이 타락의 길로 들어섰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렘 2:13; 15:6).
- (4)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하고 타락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된다(참조, 왕하 21:9).
- (5)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肢體)된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이김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 5:13-16; 롬 12:12).

13. ⓐ ‘여호와와 날’의 회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여호와와 날’ 곧 ‘심판의 날’의 회생 제물은 유다를 가리킨다. 즉 이 ‘회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예비하셨다는 의미이다.
- (2) 특히 이날에는 방백들과 왕자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착용하는 의복을 입은 자들(8절)

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며,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強暴)와 꾀술(詭譎)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9절).

- (3)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신 7:8; 렘 31:3; 시 125:2) 유다가 이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14. ㉠ 본절에서 ‘칭(誦)할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킨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사 7:17).
 (3)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적은 여러 번 있다(사 10:5; 13:4, 5; 렘 50:24-29).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엔 우리를 멸하시며 비웃는 자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훈계하며 책망하여 바른길로 돌아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삼하 16:5-8).

15. ㉠ 방백(方伯)들과 왕자들 그리고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8절)

- ㉠ (1) 여기서 방백, 왕자,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모두 국가의 지도층으로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며 타락한 자들을 가리킨다(3:3; 렘 2:8; 미 3:1-3).
 (2) 더우기 이들은 종교적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고(미 3:5, 11) 도리어 국민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죄악을 범하였다(1:12).
 (3) 이와 같이 지도층의 부패는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파탄을 가중시키며, 결국 국가를 파멸시키는 근원이 된다.

16. ㉠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이것은 문턱을 거룩하게 생각하여 밟지 못하고 뛰어넘는 것으로 블레셋의 신(神) 다곤을 경외하는 관습을 말한다(참조, 삼상 5:5).
 (2) 이런 관습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가 죽은 후(삼상 4:18)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은 그 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던 것(삼상 5:2)을 알 수 있다.
 (3) 다음날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나뒹굴었으니, 그 후로부터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가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습이 생겼던 것이다(삼상 5:5).
 (4) 그런데 유다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우상 숭배의 관습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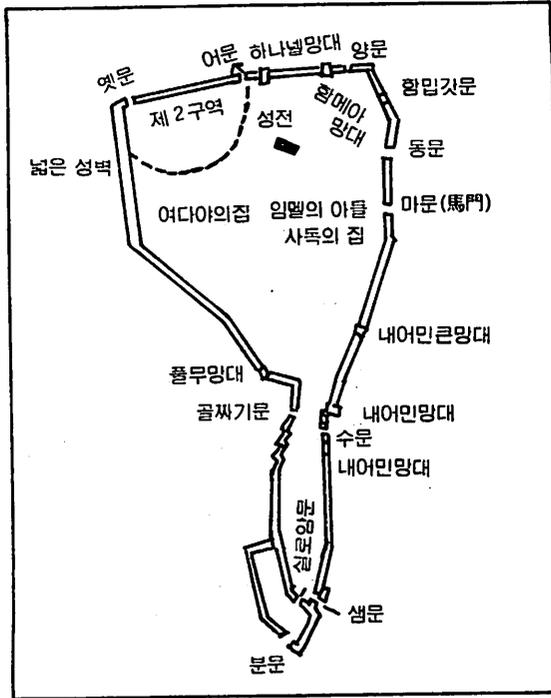
17. ㉠ 강포(強暴)와 꾀술(詭譎)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9절)

- ㉠ (1) 부당하게 획득한 재물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자들을 가리킨다.
 (2)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 폭력과 속임수로 타인들에게서 재물을 빼앗게 되었다.
 (3)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며, 우상의 노예가 되어 민족 정신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18. ㉠ 어문(魚門)과 제 2구역(第二區域)은 어디에 있는가? (10절)

- ㉠ (1) ‘어문’은 예루살렘의 북서쪽 티로펜 골짜기에 위치하며(대하 33:14), ‘제 2 구역’은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과 북쪽 벽의 모퉁이를 이루는 안쪽 지역에 위치한다(왕하 22:14; 대하 34:22).

- (2) 한편 드넛세는 예루살렘 성밖의 기혼 서편 골짜기에서 어문까지 외성(外城)을 쌓았는데(대하33:14), 후일에 이를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재건하였다(느3:3).
- (3) 그리고 '제 2 구역'은 여선지 홀다가 살았던 구역으로(왕하 22:14) 어문과 가까운 지역이었다.
- (4) 그런데 어문과 제 2구역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9. ㉠ '막데스 거민'들의 생업(生業)은 무엇이었는가? (11절)

- ㉠ (1) 그들은 예루살렘의 상업 지대에 거주하며 상업을 생계로 하였다.
- (2) '막데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의 움푹 들어간 지대, 즉 낮은 지역으로 추정된다(참조, 사15:19).
- (3) 한편 가나안 백성도 무역업이나 상업을 하는 자들로서 '막데스 거민'들과 서로 거래하는 자들이었다. 여기서 가나안 백성이라 함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4) 그러나 그들은 침략자들의 공격으로 생업을 잃고 울부짖게 되었다(참조, 사42:22). 이처럼 평소에 의지하던 부귀(富貴)도 환난이 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18절).
- (5)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뿐임을 교훈하고 있다.

20. ㉠ 여호와께 무관심한 자들이 받을 벌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그것은 그들의 재물이 노략(擄掠)되고 집이 황무(荒蕪)할 것이며,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2) 이것은 곧 '여호와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그곳 주민들의 생활이 파괴되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참조, 사42:22).
- (3)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진 자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된다(참조, 암5:11).

21. ㉠ '여호와와 날'은 어떤 날인가? (15, 16절)

- ㉠ (1) 그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무와 파괴(敗壞)의 날이며 흑암의 날이다. 또한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望臺)를 치는 날이다.
- (2) 이것은 '여호와와 날'이 두려운 파괴의 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닥쳐올 심판을 예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이키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2:1-3).
- (3)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지체 없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사55:7).

22. ㉠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내리는가? (17절)

- ㉠ (1) 그들에게는 '소경같이 행하며 피는 흘러워서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糞土) 같이 되는 형벌'이 내린다.
- (2) 실제로 이스라엘은 잔인한 외적의 침략으로 생명을 잃고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다(참조, 시79:3).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적하며 범죄한 자들에게는 철저히 징계를 하신다(참조, 시83:10).

23. ㉠ 여호와께서 이 땅 모든 거민(居民)을 멸절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 ㉠ (1) 그들의 재산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와 질투(嫉妬)의 불에 삼키울 것이다.
- (2) 이것은 곧 온 땅에 임할 환난으로 인해 아무리 많은 재산으로도 식량을 구할 수 없어 굶주리게 됨을 가리키며(겔7:19), 또한 그 환난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2, 3절).
- (3)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참조, 12:19),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범죄한 자들을 도울 수 없다(3:8).



제 2 장 하나님의 권고와 이방에 대한 심판

단락구분 1-3 회개에 대한 권고 / 4-7 불레셋에 대한 심판 / 8-11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 12-15 구스와 잇수르에 대한 심판

1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이다 모일지이다

2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갈이 날아지 나가기 전,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이다

3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4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 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5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불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와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6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 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7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짐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들이킬 것임이니라

8 내가 모압의 책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책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켈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0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와 백성을 책방함이니라

11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2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륙을 당하라

13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잇수르를 멸하며 니스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폐마르게 하리니

14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떼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15 이는 기쁜 성이라 열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의 엷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리라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권고하시고 있다(1-3절).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비웃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진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4-15절).
- (3) 그런데 심판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본장은 교훈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한 의(義)의

길로 인도하신다(참조, 롬 8:32).

2. **㉠ 스바냐는 회개의 급박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 2절)**

- ㉠** (1) '모일지어다'라는 말의 반복과 '시행(施行) 되기 전', '지나가기 전', '임하기 전', '이르기 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회개의 급박함을 경고하고 있다.
- (2) 또한 '명령',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과 같이 결단을 요구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 (3) 우리는 이러한 회개에 대한 간곡한 권고에서 심판이 곧 임하리라는 급박함을 느낄 수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먼저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참조, 잠 28:13).

3. **㉠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어느 백성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유다 백성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렘 6:15)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 (3) 이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을 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디어지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고 만다(참조, 전 8:11).

4. **㉠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무엇인가? (1절)**

- ㉠** (1)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모이라는 것이다.
- (2)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1:1) 떠난 유다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당신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권고이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과의 화해를 제시하신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5. **㉠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야 할 자들은 누구인가? (3절)**

- ㉠** (1) 여호와와의 규례(規例)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다.
- (2) 이들은 소수의 경건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지키던 사람들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내릴 심판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참조, 사 26:20, 21).
- (4) 이처럼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고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9절).

6. **㉠ 하나님의 규례(規例)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3절)**

- ㉠** (1) 그들은 여호와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흑시 숨김을 받을 것이다.
- (2) 한편 본절에서 '흑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에 대한 구원이 그들의 경건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함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7. **㉠ 블레셋의 도시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삿 10:7, 8; 삼상 4:1, 10).
- (2) 한편 이들은 팔레스틴의 서남부 지방, 즉 지중해 연안에 거주한 그레테 섬에서 온 족속이다(창 10:14; 렘 47:4; 암 9:7).
- (3)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된 것은 사사 시대부터이다(삿 13-16장).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단과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관할하에 있었다(삿 14:4; 15:11).
- (4) 그리고 블레셋은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빼앗아 갔고(삼상 5:1), 여호람 왕 때는 유

다에 쳐들어와 왕궁의 재물을 약탈했었으나(대하 21:16, 17), 다윗 왕 이후에는 세력이 약화되었다(삼하 5:17-25).

8. **㉠** 블레셋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었는가? (4절)

- ㉠** (1) 블레셋에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과 가드 등 5개 도시가 있었다.
- (2) 이들 중 ‘불모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그론은 최북단의 도시로 소렉 골짜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수 13:3; 삼상 6:16, 17), 이스라엘의 법제가 빼앗겨 옮겨진 곳이다(삼상 5:10).
- (3) 에그론의 남쪽에 위치한 아스돗은 원래 아낙 사람의 성읍(수 11:21)이었으나 후에 블레셋의 땅이 되었으며, 앗수르의 사르곤 2세(B. C. 722-705)에 의해 B. C. 711년에 함락되었다(사 20:1).
- (4) 또한 바닷가에 위치한 아스글론은 아스돗 남쪽 16km에 있으며, B. C. 1850년경에 예루살렘과 함께 이집트에 대항한 도시 중 하나였다. 아스글론도 역시 앗수르에게 멸망되었다(B. C. 734).
- (5) 그리고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역과 군사의 요충지였다. 가사는 B. C. 609년 애굽의 바로에게 점령되었다(렘 47:1).
- (6) 마지막으로 가드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 당시 살아 남은 아나킵족이 살고 있던 곳으로(수 11:22), 가사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 (7) 한편 스바나는 여기서 블레셋의 도시들이 주위의 강국들인 앗수르와 애굽에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9. **㉠** 블레셋 도시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가드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가드는 스바나가 예언하던 시대(B. C. 627-626)엔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다(암 6:2).
- (2) 한편 가드는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한 도시였으며(삼상 5:6-10; 삼하 21:20),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의 아나킵족이었다(삼상 17:4, 23). 또한 후에 다윗은 가드 사람으로 자기의 천부장과 종자를 삼기도 하였다(삼하 15:18-22; 18:2, 5).
- (3) 그리고 유다 왕 웃시야(B. C. 790-739)가 가드의 성벽을 무너뜨렸으니(대하 26:6), 앗수르의 사르곤 2세(B. C. 722-705)의 팔레스틴 침공(B. C. 715) 이후 선지자들은 블레셋의 성읍 중에서 더 이상 가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렘 25:20; 암 1:6-8; 속 9:5).

10. **㉠** 스바나는 블레셋 도시들의 멸망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4, 5절)

- ㉠** (1) 블레셋의 도시들이 ‘버리우고 황폐되며 백주(白晝)에 쫓겨 나고 뿔뿔히우며 거민이 없게 되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B. C. 605-562)의 침략으로 성취되었다.
- (2) 이처럼 블레셋은 하나님의 진노로 주위의 강국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으며(사 20:1; 렘 47:1), 그 땅에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거하게 되었다(7절).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잠시 흥할 수는 있어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잠 20:5).

11. **㉠** 그랫 족속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5절)

- ㉠** (1)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다(렘 47:7).
- (2) 성경에서는 이들이 블레셋 사람과 더불어 언급되어 있는데(렘 25:16) 이들의 국경은 블레셋과 경계를 같이하고 있었다(삼상 30:14).
- (3) 따라서 이들은 블레셋이 갑돌, 즉 그레데 섬에서 팔레스틴으로 들어올 때(창 10:14; 렘 47:4; 암 9:7) 함께 이주해서 팔레스틴의 남서부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 하나님께서 멸하여 거민이 없겠다고 하신 블레셋 땅은 어디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 멸하여 거민이 없겠다고 하신 블레셋 땅은 가나안이다.

- (2) 그런데 가나안은 일반적으로는 요단 강 서쪽의 땅을 말하며(창 12:5; 민 33:51) 때로는 지중해 동쪽 연안 땅을 포함하여 지칭하기도 한다(민 13:29; 수 11:3).
- (3) 한편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창 10:6)으로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등이 있었는데(창 10:15-17),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들을 모두 멸하라 고 명하셨다(신 20:16-18).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신 7:2-4). 더우기 가나안 족속들은 부도덕하고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이었다.
- (5)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었다(삿 1:27-36).

13. **Q**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징벌로 인하여 해변 땅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6, 7절)

- A** (1) 그 땅은 초장(草場)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 떼의우리가 있을 것이며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셨다.
- (2) 이것은 바벨론 포로 후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암 9:14; 호 6:11).
- (3) 여기서 '유다 족속의 남은 자'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참조, 느 1:2, 3; 스 8:6, 11, 12).
- (4) 또한 이들은 무서운 재난에서 살아 남은 자들로서 미래의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다(참조, 삿 21:16, 17).
- (5) 즉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다(3절).
- (6) 그러나 이 가운데는 유다가 패망할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잔류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참조, 렘 8:3; 겔 24:8).
- (7) 한편 신약에서 이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믿음을 근거로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롬 11:5, 7).

14. **Q**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8절)

- A** (1)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훼방(誣謗)하고 후욕(詬辱)하였으며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
- (2) 한편 모압은 사해의 동편 고원 지대에 있었으며, 그 조상은 룻의 두 딸 중 장녀의 아들이었다(창 19:37).
- (3)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모압 땅을 지나려 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삿 11:17),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다(신 23:4; 수 24:9).
- (4) 그리고 암몬은 요단 강 동편, 압복 강 상류에 거주하였으며, 룻의 작은 딸의 아들인 벤 암미의 자손이었다(창 19:38).
- (5) 그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 에돔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였으며(20:1), 또한 길르앗 침공 때 잔인한 일을 많이 하였다(암 1:13).
- (6)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시하던 이들 족속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9절).

15. **Q** 하나님의 백성을 훼방하고 침범(侵犯)한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 A** (1) 모압은 소돔같이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는 쫓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게 될 것인데 여호와의 살아 남은 백성은 그들의 땅을 기 업으로 얻을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과 암몬이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곳이

형벌을 받아 황폐해진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가리킨다(창 19:24-28).

- (3) 역사상 모압과 암몬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B. C. 6세기 이후에 망하였다(참조, 절 25: 4, 8, 9).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끝내 악인을 멸하신다(시 37:1, 9, 10, 14, 15).

16. **㉠**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것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神)을 쇠진(衰盡)케' 하시기 때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던 자들을 멸하시며 그 우상이 그들을 구원치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우상의 허구성(虛構性)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레 19:4; 신 32:21).
- (3)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교만하던 이방의 멸망은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이다(참조, 시 22:27).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3:9),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요 3:16; 딤후 2:4).

17. **㉠** 구스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칼에 살륙(殺戮) 당하게 되는가? (12절)

- ㉠** (1)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의 심판을 아무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스바나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의 죄악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남쪽의 나라인 구스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대하 20:6).
- (3) 한편 구스는 함의 아들로서(창 10:6) 그 민족이 거주한 위치는 애굽의 남쪽 동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홍해에 접해 있었다.

18. **㉠**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는 북쪽의 나라는 어디인가? (13절)

- ㉠** (1) 앗수르로서 그 수도는 니느웨이다.
- (2) 그런데 앗수르는 앗술바니팔(Ashurbanipal, B. C. 668-626)의 치세 때 국력이 최절정에 이르렀으며, 수도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최대의 성읍으로서 학술이 발달하였고 사치가 극에 달했으나 B. C. 612년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했다.
- (3) 한편 앗수르는 자신들의 종교를 유다에 강요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다 왕들은 자진하여 앗수르의 종교를 따랐다(왕하 16:3, 4, 10-20; 21:1-9).
- (4) 그리고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수차에 걸쳐 침공하여 멸망시켰고(B. C. 722, 왕하 17:6) 유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아 공물을 요구하며 자주 괴롭혔다(왕하 16:8; 18:17).
- (5) 그러나 이 앗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다시는 니느웨에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였다(14절; 사 13:21, 22; 34:14).
- (6)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고 강한 존재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티끌같이 여기시며 반드시 멸하신다(참조, 시 145:20; 잠 2:22).

19. **㉠** 스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4절)

- ㉠** (1) '각양(各樣) 짐승이 그 가운데 떼로 누울 것이며 당아(塘鵝)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고 하였다.
- (2) 이것은 곧 니느웨의 부귀와 영화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 땅이 철저히 파괴되어 사람은 살지 않고 단지 짐승이 거하는 곳으로 변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3) 한편 여기서 ‘당아’와 ‘고슴도치’는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 확실치 않으나, ‘당아’는 펠리컨(Pelican), 매 혹은 부엉이로 추측되며, ‘고슴도치’도 혹자는 날짐승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포유 동물인 고슴도치로 추정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인간이 불의에 의해 쌓아 올린 부귀 영화는 당시에는 보기 좋고 힘이 되지만 반드시 사라진다(참조, 함2:9, 10).

20. **Q** 앓수르의 멸망 원인은 무엇인가? (15절)

- A** (1) 그것은 앓수르가 그들의 국력을 믿고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 (2) 앓수르는 국력이 워낙 강하여 남의 침공을 받기 보다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속국으로 만들고 그들에게서 조공(朝貢)을 받아 왔다(왕하15:11,19;17:3-6;18:9-11,13-37).
- (3) 따라서 그들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였다(왕하18:19-37).
- (4)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았다(참조, 사47:8;겔25:5).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한 자를 징벌하셔서(나3:7),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신다(참조, 대하20:6).

화보자료

고슴도치 모양의 도기(陶器). 이집트의 한 지방에서 출토된 것이다.



고슴도치는 인적(人跡)을 꺼려 하여 어둠이 깃들 무렵부터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스바냐가 백주(白晝)인데도 앓수르 전역에 각양 짐승과 당아(塘鵝), 고슴도치가 뛰놀리라고 예언한 것은 장차 앓수르가 망하여 완전히 폐허화될 것을 의미한다(14절).

제 3 장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미래의 구원

단락구분 1-7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 8 열방들에 대한 심판 / 9-10 이방을 위한 축복의 약속 / 11-20 유다를 위한 축복의 약속

- 1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 2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 3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른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 4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 5 그중에 거하신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 6 내가 열국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 7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기와 너의 처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 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 9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뜨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와 이름 붙으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 10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흡은 자의 딸이 구세구사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 11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

- 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소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 12 내가 끈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꾀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 15 여호와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 16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18 내가 대희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 19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 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속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 20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들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 딸이니라

1. ㉠ 본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되지만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도 다시금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12, 13절).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17-20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서 정결케 하시며 또한 그를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참조, 잠3:12).
- 2. ㉠ 스바냐는 당시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절)**
- ㉠** (1) 그는 예루살렘을 패역(悖逆)하고 더러운 곳이며 포학(暴虐)한 성읍으로 묘사했다.
- (2) 이처럼 예루살렘은 거둬지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반역하는 도시로 전락하였으며(2:4), 지배 계층은 백성들을 압제하는 포악한 정치를 하였다(참조, 렘6:6).
- (3)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악을 지적받고도 회개치 않는다면 그 마음이 완악(頑惡)해져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러 것이다(잠29:1).
- 3. ㉠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依賴)치 않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즉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는 들어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참조, 렘5:3), 오히려 그들의 부(富)를 의지하고(참조, 1:11),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숭배했다(1:4-6, 12).
- (3) 이처럼 진리의 말을 듣고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진리에 의해 판단을 받아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약1:23; 4:17).
- 4. ㉠ 스바냐 당시의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어떠한가? (3절)**
- ㉠** (1)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獅子)와 같았으며, 또한 재판장들은 이른날까지 남겨 두는 법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았다.
- (2) 이는 곧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의의 재물을 취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음을 의미한다(참조, 겔22:27).
- (3) 또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도와 주고 옳게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장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서 이득을 얻을 생각을 하며 부당한 판결을 통하여 뇌물을 뜯어내었음을 가리킨다(참조, 미3:11).
- (4) 이러한 국가 지도층의 부정 부패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하며 불신의 사회를 만들게 된다(참조, 렘23:2; 겔34:2, 3).
- 5. ㉠ 스바냐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4절)**
- ㉠** (1) 스바냐 당시의 선지자들은 위인(爲人)이 경솔(輕率)하고 간사(奸邪)한 자들이었으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었다.
- (2) 이것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인 양 예언하여 거짓을 전한 것과(렘23:32),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을 더럽히며 율법을 어긴 것을 말한다(렘23:11; 겔22:26).
- (3) 한편 이와 같은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5, 7절).
- (4)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 버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에 해를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참조, 수7:11, 12).
- 6. ㉠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5절)**

- Ⓐ (1)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은 타락했지만 그중에 거하신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間斷)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더욱 드러나게 한다(참조, 신 23:14).
- (3) 여기서 우리는 불의한 인간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공의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롬 9:22).

7. Ⓞ 하나님께서 열국을 끊어 버린 결과 열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6절)

- Ⓐ (1)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열국은 망대(望臺)가 황무하였고 성읍이 황폐되어 거하는 자와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다.
- (2) 이처럼 이방이 징계를 받아 황무(荒蕪)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2:10).
- (3) 한편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하여 이처럼 심판하신 것은 곧 자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이로 인하여 유다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이다(참조, 사 45:21).

8. Ⓞ 하나님께서 유다를 혼계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유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하여 악행을 좋아하며 계속하여 죄를 범하였다(3:2).
- (3) 이와 같이 혼계를 멸시하는 자는 마음이 우둔하고 완악하여져 죄를 범하고서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참조, 잠 13:1).

9. Ⓞ 패역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8절)

- Ⓐ (1) 여호와께서 일어나 벌할 날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 (2) 이러한 명령은 유다의 죄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3:1, 2).
- (3) 또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심판임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욕 3:2).
- (4) 따라서 유다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1:6, 12; 3:3, 4)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열국에 의하여 파멸을 당한 것같이(1:10, 16, 17) 열방도 그들의 교만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2:4-15).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썩어서 냄새를 발하며 계속 부패해 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해를 끼치는 악을 징벌하실 뿐 아니라 그 악에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시어 악이 만연된 사회를 정화(淨化)하신다(참조, 겔 36:25-31).

10. Ⓞ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一心)으로 섬기게 하신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부정한 것을 멸하신 후 우상의 이름을 부르던 열방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열심으로 섬기게 하신다(참조, 호 2:19).
- (3) 여기서 우리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참조, 딤후 2:4) 그분은 우리에게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겔 18:23) 라고 말씀하셨다.

11. Ⓞ 심판이 지난 후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10절)

- Ⓐ (1) 그들은 구스 하수(河水)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2) 이것은 여호와와 심판에 의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중 구스와 같이 먼 남쪽에 거하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말한다(참조, 사 11:11).

(3) 한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다(참조, 골 3:16).

12. ㉠ '내가 흠은 자의 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0절)

㉠ (1) 그것은 여호와와 심판에 의해 침략자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각국으로 흩어져 나약해진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2) 즉 B. C.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되어 앗수르와 메대의 여러 고을에 포로로 잡혀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왕 17:6).

(3) 그리고 이 말은 B. 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B. C. 604-562)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며(왕하 25:8-12) 또한 남은 자들 중 많은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기도 한다(왕하 25:26).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징벌을 받아 타인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참조, 왕하 18:23; 사 42:22).

13. ㉠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 그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1) 그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교만한 자를 제(除)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산(聖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 즉 이스라엘 안에서 교만한 자와 거룩을 가장(假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고 의롭고 겸손한 자들만이 남기 때문이다(참조, 말 4:1).

(3)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참조, 사 57:15).

14. ㉠ 본절에서 '그날'과 '그때'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 (1)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심판 후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를 가리킨다.

(2) 또한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어 겸손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중에서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다(참조, 사 2:11).

(3)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참조, 신 9:5; 딤후 3:5).

15.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겨 두실 자들은 누구인가? (12절)

㉠ (1) 끈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다.

(2) 한편 이들은 의롭고 순전한 자들로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와 이름만을 의지하는 자들이다(참조, 사 14:32; 마 5:3).

(3) 이와 같이 마음이 순전하고 의로운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증휼을 입지 못한다(2절).

16. ㉠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13절)

㉠ (1)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꾀술(詭譎)한 혀가 없다.

(2)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간사한 혀로 거짓말과 아첨을 하지 않는다(참조, 사 60:21; 계 14:5).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참조, 사 60:21; 미 5:4).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른다(참조, 욥 17:9).

17. ㉠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시온이 노래하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전심(全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2)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에게서 심판이 지나갔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에서 편안히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7).
 (3)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12, 13절; 사 54:1; 스 2:10).
 (4) 이와 같이 성도들의 의무는 구원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송하는 것이다(참조, 시 33:1; 66:2).

18. ㉠ 이스라엘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참조, 스 2:10).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선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나아갈 때엔 대적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책망하사 죄를 깨닫고는 바른길로 돌아서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미리 화를 당할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참조, 사 42:16).

19. ㉠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고할 말은 무엇인가? (16절)

- ㉠ (1) 예루살렘이 두려워하지 말며 시온이 그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2)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심판이 지났으니 이스라엘은 재앙과 고통을 두려워하여 낙심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는 것이다(참조, 사 35:3).
 (3) 이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만 담대한 신앙이 요구된다(참조, 수 1:9).

20. ㉠ 스바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가? (17절)

- ㉠ (1) 스바나는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全能者)’로 묘사하였다.
 (2)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섬기던 우상(참조, 1:4, 5)과 이전에 의뢰하던 앗수르 및 애굽(참조, 왕하 17:3, 4; 18:20, 21)에서 돌이켜 이제는 구원의 수호자로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참조, 사 63:1).
 (3) 이처럼 구원은 우리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다(참조, 사 25:9).

21. ㉠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한 즐거이 노래부르고 기뻐하실 것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만족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이다(참조, 사 62:5).
 (3) 이처럼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참조, 시 16:11; 요 15:11).

22. ㉠ 하나님께서 불러모으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18절)

- ㉠ (1) 그들은 대회(大會)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며 이스라엘 중에 속하여 이스라엘의 치욕(恥辱)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자들이다.
 (2) 즉 그들은 이스라엘 성회(聖會)의 파괴와 민족의 분산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한 데 대해 근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원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불행은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자들이다(참조, 렘 1:4; 2:6).

(3) 이와 같이 참된 성도는 교회의 부패와 그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아파하며, 교회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로부터 질책받는 것을 마땅히 근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미 1:8).

23. **Q** 하나님께서 대회를 위해 근심하는 자들을 불러모으시는 일 외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또 다른 일은 무엇인가? (19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벌하시고, 저를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羞辱)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일이다.
 (2)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자들을 쫓아내고, 압제와 고통과 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위로하고 축복하실 것을 가리킨다(참조, 사 60:14; 렘 33:9).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시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신다(참조, 시 27:1; 37:39).

24. **Q**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20절)

- A**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상태에서 돌이키시어 그들이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것이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 그들을 그대로 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돌보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불러모으실 것이다(2:7,9).
 (3)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며, 온 세상에 그들의 이름이 알려져 칭찬을 받게 하실 것이다(창조, 렘 13:11; 33:9).
 (4)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참조, 사 63:1).
 (5) 이처럼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보다 나은 신앙의 단계를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이다(참조, 사 60: 21; 계 14:5).

지도자료

스바냐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 ① 유다 (1:2-18) ② 블레셋 (2:4-7) ③ 모압 (2:8-11) ④ 암몬 (2:8-11) ⑤ 에티오피아 (2:12) ⑥ 앗수르 (2:13-15) ⑦ 예루살렘 (1-7절)



화보자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처녀들이 바닷가에서 유희(遊戱)를 즐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살전 5:16). 그러나 그러한 기쁨의 근간(根幹)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어야지 결코 인간적인 것에 치중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참조, 사 25:9; 빌 4:4). 이 같은 점은 스바나도 교훈한 바인데 그는 본장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성도로서 행할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다(14-17절).